



해외로 날아간 벤처 최고경영자과정



글 박소연 (㈜위즈크리에이티브 대표)



‘또 한번의 수학여행’



CEO의 열띤 설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이곳의 업무 시설이 너무도 일상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일정 지역 혹은 도시 전체를 무선 네트워크로 엮는 나라에서 왔으니,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물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 사이버포트 주변의 업무 배후 시설과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 지원 시설 등은 약간의 부러움을 갖게 했다. 서울 상암동에 건설되는 디지털 미디어시티가 사이버포트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멋진 석양이 깃든 앞바다까지 가져다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이버포트에서 나와서 나는 홍콩에서의 지인과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일행과 떨어졌다가 합류했는데 일행들이 저녁으로 먹었다는 김치찌개 자랑에 조금은 부러워졌다. 한국을 떠난 지 1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이 부러웠던 것을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보다.

일생을 두고 기억에 남는 여행은 몇 번이나 될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나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을 꼽으라면 수학여행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학생 시절, 공부라는 일상에서의 ‘집단 탈출(?)’이라는 점이 수학여행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여행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벤처최고경영자과정 해외 연수는 어느 정도 수학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생각에 출발 전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은 10월 25일 오전 8시 50분. 공항에 모이기로 한 시간은 아침 7시다.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잠을 설치고, 새벽부터 서둘러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많은 동기들이 공항에 자리해 있었다.

사실 홍콩은 업무적으로도 자주 방문했던 곳이지만, 최고경영자과정 동기들과 함께한다고 하니 기분이 또 달랐다.

점심 이후에는 첫날부터 강행군이 이어졌다. 홍콩에서의 첫 방문지는 첨단업무시설 종합 테마파크인 사이버포트(CyberPort)였다. 이곳은 최첨단 광케이블을 통해 중국 본토와 직접 연결되고, 건물 내 완벽한 무선통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이버포트

‘세계의 창’과 민속촌인 ‘이화원’을 방문하는 날. 세계의 창을 찾아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나를 놀라게 했다. 높은 빌딩숲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넓은 도로와 가로수. 어느 곳에서도 그 동안 내가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은 없었다. 세계의 창은 세계 유명 관광지를 축소해 놓은 곳이다. 하지만 말만 축소지, 첫 입구부터 그 위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축소된 에펠탑의 크기가 실물의 3분의 1이라고 한다. ‘역시 중국이다’란 생각이 절로 들었다.

오후 시간은 심천한국상공인회 강희방 회장의 성공적인 중국 심천 진출 전략이란 강의를 듣고, 현지 한국 기업인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유익했고, 또 부쩍 친해진 최고경영자과정 동기들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진짜 수학여행을 마친 기분이 들었다. 생각 이상으로 뻘뻘한 일정과 여행지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이 그랬다. 하지만 다른 것이 몇가지있었다. 흥미 진진한 중국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같은 아시아 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스케일의 도시와 사람들로부터 느끼 신선함.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헤보자’ 라는 동기부여가 되어준 프로그램들 더불어 같이 여행하며 수많은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나누는 우리 최고경영자과정 4기 동기들과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또 한번의 수학여행이 아니었다면 언지 못했을 소중한 일 것이다.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 4기는 지난 10월 25일~28일까지 홍콩·심천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미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은 ▲1기 중국 상해·소주 ▲2기 일본 도쿄·후쿠오카 ▲3기 베트남 하노이 등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의 해외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실속 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체험, 꼼꼼한 일정으로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벤처 최고경영자 과정 해외연수를 들여다본다.



‘백문이 불여일견’

여행 전부터 준비할 것이 많았다.

비속에서 집단 퍼포먼스(?)까지 행했다는 3기들의 무용담이 여행을 준비하는 총무로써의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했다. 라면, 고추장 등과 영원한 우리의 여행 상비약 ‘백 소주’까지 넉넉하게 챙긴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에 도착했다.

홍콩까지의 비행시간은 3시간여. 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을 끝내고 홍콩 땅을 밟았다. 허스키한 가이드의 목소리에서 3박 4일간의 강행군을 예감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홍콩은 나에게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사이버포트 전학을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빅토리아파크에 올라 홍콩 야경을 감상한 뒤 서둘러 심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 예감이 현실화됐다.

‘방 배정만 받고 다시 현관으로 집합!’

회장님의 즐거운 지시가 떨어지자, 29명 전원이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여행이란 이래서 좋다. 일상의 복잡함을 잠시나마 떨쳐버리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첫날 밤은 그렇게 우리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들간의 간격을 가깝게 만드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다.

다음날, 심천한국상공인회를 방문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묻는 말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뿐’이라는 말은 새삼 충격으로 다가왔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중국 현지에서 접하는 그말의 느낌은 사뭇 달랐다. 이미 IT분야 등 모든 면에서 한국 기술 수준과 대등하거나 앞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면에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큰 기여를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궁금했던 자세한 이야기는 저녁 만찬에 참석현지 기업인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심천에서의 이튿날을 마치고, 홍콩으로 돌아왔다. 이어진 일정은 세계에서 2번째로 길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홍콩해양공원. 마침 주말을 맞아인지, 이곳도 중국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이후 잠시 찾은 도심 쇼핑센터에서는 명품 ‘L’사의 숄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었다. 중국 본토인이 홍콩의 최고 호황을 이끌고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미국 달러는 받지 않는 상점이 많기도, 중국 위안화는 모든 곳에서 통용된다는 말이 실감났다. 또 한번 발전한 중국에 대해 긴장감을 느끼는



김 최영렬 (국 인수 대표, 4기총무)



순간이었다.

그리고 홍콩에서의 마지막 밤.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찾은 야시장. 몇 개로 나뉜 팀은 각자의 취향대로 쇼핑을 하고,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일행의 절반은 홍콩 밤거리 문화 체험에 나섰다. 그렇게 1시간 남짓 헤맨 뒤 찾아낸 곳은 ‘홍콩 분식집’. 분식점 사장님이 편의점에서 사다 주신 칭따오 맥주, 닭 날개 튀김, 그리고 이름 모를 몇 가지 면요리. 그렇게 우리는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아쉬운 발길을 호텔로 돌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후한 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번 최고경영자 해외연수 심천에서는 세계경제의 거대한 플레이어 ‘중국’을 보았고, 홍콩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큰 여행용 가방에 가득했던 먹거리는 거의 비었지만, 가슴속은 동기생과의 우정과 멋진 추억들로 가득 담겨왔다. 그저 이름뿐인 연수가 아닌, 중국과 홍콩 시장의 이해와 경영에 대한 새로운 긴장감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누군가 왜 벤처 최고경영자과정정이 좋은가 묻는다면 ‘알찬 해외연수 때문’이라고 할 따름 말이다.